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3. 10. 15 ~ 2023. 11. 4 제289호

순교자의소리, "풍선 대북 성경 보내기는 좋은 대북 접근 방식"

▲ 북으로 보낼 풍선을 준비하고 있는 에릭 폴리 목사. 제공: 한국VOM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풍선으로 성경 보내기 등의 선교 활동을 펼쳐온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VOM 에릭 폴리 목사는 "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이로써 한국VOM의 대북 성경 보내기 활동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VOM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재판소의 풍선 보내기가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력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한국VOM과 함께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풍선과 관련된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VOM은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대북 전단 금지법이 발효되기 전 15년 동안 매일 밤 북한으로 성경을 실은 풍선을 보내, 60만 권 이상의 성경이 북한 내부로 전달됐다.

한편,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막말 담화 이후, 통일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입장을 밝힌 후 만들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및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의 부당성과 언론 자유를 우려하는 반응이 빗발쳤다. 2021년 4월 15일 미 하원은 의회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GPNEWS]

사람 풍경

조앤 김 교수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대학교)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났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1980년대에 미국 땅을 밟았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뛰어넘을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욕망을 꿈꾸는 삶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 그때 복음의 진리를 들으며, 죄인된 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조앤 김 교수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2)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완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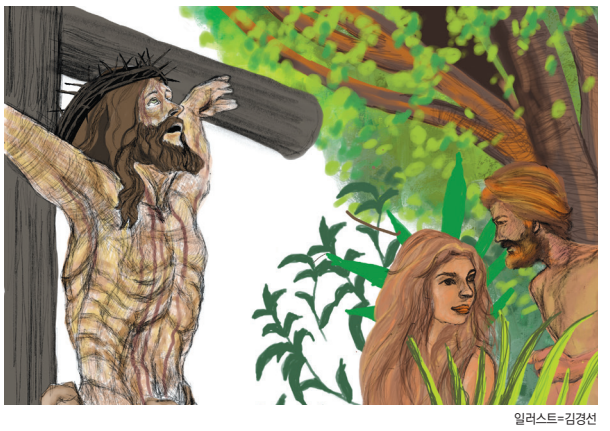
만물의 창조가 진행될 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25) 아주 간결하지만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시고 그 말씀에 한 점 흠조차 없으시니"(시편 18:30, TKV)

우리 사람들은 100% 완벽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사람이 만든 것도 꽤 쓸만하지만 아무 결함 없이 완벽한 것이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만물을 아무 결함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함, 의로움 등의 표현이 함께 사용된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시편 111:3, KSV) "옳은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이사야 5:16, KLB)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 주제들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흠이 없음',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의 표현이 '완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빠뜨리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주제는 퍼즐 맞추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조각이기도 하다. 진리에 관해 들을 때, 특히 이 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특성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완전하심'으로 인해 만물도 완전하게 지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창조 세계는 급격히 변한다.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완전 그 자체였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완전했다. [GPNEWS]



일러스트=김경선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죤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은?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미얀마 교회, 박해 속에서도 말씀 의지해

▲ 미얀마의 파다웅족. 제공: WMM

긴 목에 황동 고리를 감은 할머니와 어린 소녀가 베틀 앞에 앉아 있다. 흔히들 카렌족 또는 카야족으로 많이 알고 있는 파다웅족은 주로 미얀마의 동부에 위치한 카야주에 거주한다.

미얀마는 19세기 초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다. 불교문화가 강했던 미얀마 땅에 복음을 전한 지 7년 만에 저드슨은 처음으로 미얀마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 후 수많은 미얀마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러나 2년 전, 군부 쿠데타 이후 이곳 기독교인들은 박해에 직면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기독교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인 친주와 카야주에서 각각 35개, 12개 교회가 파괴됐다. 지난해 7월에는 군부가 사가잉주 교회들에 폭탄을 발사했고 기독교인 11명이 살해됐다.

미얀마 군부 통치에 저항하다 태국으로 피난을 떠난 마자르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 집, 가족, 생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시편 91편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박해 속에 있는 미얀마 교회들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들을 지키시고 화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 91:9~11) [GPNEWS]

美 加州 낙태 운동가 상원의원 임명, 낙태·동성애 세력 거세질 듯

미국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임기 중 별세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대신 낙태 지지 운동가이자 레즈비언인 라폰자 버틀러를 임명, 캘리포니아의 낙태지지 세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뉴섬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임기 중 별세한 고(故)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민주당원인 라폰자 버틀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버틀러는 파인스타인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2025년 1월 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뉴섬 의원실은 버틀러가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인 에밀리 리스트의 회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1호 흑인 레즈비언 상원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44세인 버틀러 지명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 일했으며, 주 전역의 32만 5000명 이상의 요양원 및 재가돌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SEIU Local 2015) 캘리포니아 지부의 회장을 역임했다.

뉴섬 주지사는 "파인스타인 의원의 상실을 애도할 때, 생식의 자유와 동등한 보호,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그녀가 싸웠던 자유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여성과 소녀의 옹호자이자 노동자의 2세대 투사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신뢰받는 고문인 라폰자 버틀러는 미국 상원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대표할 것이며 파인스타인 의원이 남긴 바통을 이어 받아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라폰자 버틀러. 출처: 유튜브 채널 MSNBC 캡처

한편, 이번 임명에 대해 생명존중 단체인 수잔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마조리 대넨펠서 회장은 "낙태 로비 단체는 낙태 안건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면서 "뉴섬과 같은 민주당원들은 결국 낙태 로비 단체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기부를 받고 있다. 이는 비선출된 상원의원직을 궁극적인 대가로 받게 되는 비윤리적 행태다. 뉴섬은 심지어 낙태 반대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출신 후보들을 배제하고 낙태 지지 후보들에게 유리한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홍콩, 국경절 예배에 中 국기 게양 논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인 성공회 교회의 세인트 존 대성당이 1일 국경절을 맞아 예배 도중 설교단에 중국 국기를 게양하기로 해 '홍콩의 중국화'가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나 홍콩의 교회 대부분은 국기 게양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거나 세인트 존 대성당을 따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의 교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떠나지 않는 홍콩의 교회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美 청년들, AI 여자친구 선택… 결혼·출산 감소 문제 심각

미국의 남성 청년들이 실제 여성 대신 가상의 인공지능(AI) 여자친구를 선택해 결혼·출산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을 인용해 뉴시스가 지난 2일 전했다. 현재 미국 젊은 남성의 60% 이상이 싱글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비율이 2011~2014년 43.8%에서 2015~2019년 39.7%로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년들이 손쉽게 얻는 정욕의 유혹에서 돌이켜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어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韓 10대 청소년·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

10대 청소년과 10대 이하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2022)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대 청소년 상담 건수는 3만 5854건으로 2018년(2만 7811건)보다 약 28.9% 늘었고, 10대 이하 상담 건수는 7971건으로 2018년(3421건)보다 133%나 늘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세대로 회복하소서. 다음세대가 스마트폰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1월 4일

10월 16일 ~ 10월 21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순회선교단 한국본부(김**)010-7929-4641, **10.18~20(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0.19(18시)~20(18시)** ▶대전 서구 / 광야아둘람공동체(정**)010-3697-0641, **10.19(18시)~21(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0.21(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10.21(09~21시)** ▶경남 진영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2교회 진행중.

10월 23일 ~ 10월 28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0.23~25(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10.25(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장**)010-8351-6592, **10.2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0.27~28(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23, **10.28(0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8교회 진행중.

10월 30일 ~ 11월 5일 **10.30~11.3(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0.30,11.2~4(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0.3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1.3(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1.3(15~20시), 11.5(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인도, 마약중독자가 복음 앞에서 회복돼

순회선교단 서아시아 지부를 섬기게 되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되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복음기도동맹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복음과 기도로 섬겨오셨고, 연합의 장들을 펼쳐놓으셨다. 작년 6월에는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서 텔루구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복음캠프가 열렸고, 올해 1월에는 스리랑카에서 싱할라어와 타밀어로 복음캠프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 목회자들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했다. 현장 선교사님들을 통해 "와서 도우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에 따라 2023년에는 5월 22~27일, 5박 6일 동안 인도 벵갈루루에서 영어-까나다어로 진행되는 복음캠프가 진행됐다. 서아시아 지부는 지금 이때에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구했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10)

이번 여정은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연합해 주셨다. 순회선교사 4명, 헤브론선교대학교 1명, 대전-서아시아 동역자 3명, 모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연합하여 팀을 이루었다. 주님은 "큰 소리(A Loud Voice)"라는 팀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다. 40도에 이르는 무더운 인도의 여름 날씨.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강사들. 거기다가 처음으로 6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라 먼 거리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시작하는 날 아침 자신의 섬김 영역을 알게 된 섬김이들.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 인도 복음캠프 현장. 제공: 최영 선교사

캠프가 시작되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불러주신 이들의 심령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은 맡겨진 직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다.

복음캠프가 끝나고 모든 시간이 지나간 후, 우리는 각자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돌아보니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캠프의 문은 넓게 열렸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초대됐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복음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캠프가 끝난 후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주님은 복음캠프에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복음 앞에 서는 동안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들을 수 있었다.

◇◇◇◇◇◇

"저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폭력과 음란을 일삼았습니다. 여러 번 빠져나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복음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라는 사실을.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제 저의 삶을 선교사로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복음이 제게 이루신 일을 모든 사람과 나눌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훈련생 A

•••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해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담배를 챙겨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기에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며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와 하나라는 것을. 나의 옛 사람은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훈련생 B

◇◇◇◇◇◇

교회 장로이지만 간음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 소셜미디어(SNS)에 중독이 되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울고 웃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훈련생들의 고백을 듣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었다. 우리 모두는 구원하심이 사람에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아시아 곳곳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들

순회선교사의 특성상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땅 끝에서 열방과 영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는 기쁨을 넘어, 때로는 먹먹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게 한다.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듣게 되는 고백들이 있다. 교육이 없는 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 병원을 지어줄 수 있지만 무엇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꾸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공인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은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다. 나의 중심을 바꾸어 오직 나! 나! 나! 나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어두웠던 영혼들의 얼굴이 밝아져 기쁨이 회복되고, 마약에 중독되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영혼들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번 복음캠프에서 통역으로 섬겨주신 한 인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들었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에 함께 감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대화의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2층에서 들려오던 기도 소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캠프 장소는 1층에 있었고 2층에서는 영어도, 까나다어도 어려웠던 한국에서 온 동역자님들이 사탄을 씹어먹을 듯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1층 강의실에도 들릴 정도였다. 목사님의 고백을 들을 때 내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주님은 복음과 기도로 일하셨다!

우리는 벵갈루루에서 델리로, 델리에서 바라나시로 이동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중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 순회선교단이 진행하던 한 훈련장에서 만나고 약 10여 년 만에 뵙는 것 같았다. 노년의 나이에 인도에 오셨고, 1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나갔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홀로 주일학교와 인도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에게 인도 아이들이 물었다. "한국에 왜 안 가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단다. "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의 가족이야."

▲ 기도하고 있는 복음캠프 훈련생들. 제공: 최영 선교사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땅과 영혼들을 섬기리라 하신 선교사님의 고백은 깊어진 주름과 해어진 소매와 함께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에 감격한 예수 증인들을 통하여 열방에 흘러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또한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땅에 심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며 많은 선교사님들의 철수 소식과 멈춰진 사역의 소식들을 듣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감각되든 감각되지 않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음을 믿는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 마라나타! [GPNEWS]

최영 선교사
(순회선교단)

▲ 인도 복음캠프 섬김이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최영 선교사

사람 풍경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조앤 김** 교수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대학교)

• 1면에 이어

- 미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1987년도에 남편의 미국 유학길에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남편과는 대학 영어회화 서클에서 만났어요. 저는 당시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학교와 직장 사이에서 공부를 그만둬야 하나 갈등하는 중이었고, 남편은 컴퓨터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당시 한국이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라 지금처럼 공부하다 아무 때나 나와서 결혼을 할 수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결정해야 했는데, 결혼하기 좀 이른 나이였지만 결혼을 강행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 미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댁의 도움으로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 받았지만, 저희가 미국으로 떠난 후 얼마 안 있어 시댁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더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 상황에서 귀국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제활동도 해본 경력이 없어서 그 이후 수년간 눈물나는 고생길을 걸었습니다. 라면 하나 살 돈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한 한인 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소개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캐셔 일을 하게 됐는데,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차들은 뒤집어져서 불이 붙어있고 가게 유리들은 다 깨져있었죠. 제가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게다가 1994년에 노스리지에 대지진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 지진을 겪었는데 갑자기 방이 흔들리고 선반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떨어지고 밖에서는 자동차 알람이 울리더군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고 불이 났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 우는 소리, 대피하는 소리, 사이렌 소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지진의 트라우마도 오래갔어요.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못탔어요. 엘리베이터의 흔들림이 여진과 매우 비슷했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어린 나이에 느낀 것이죠."

이민자로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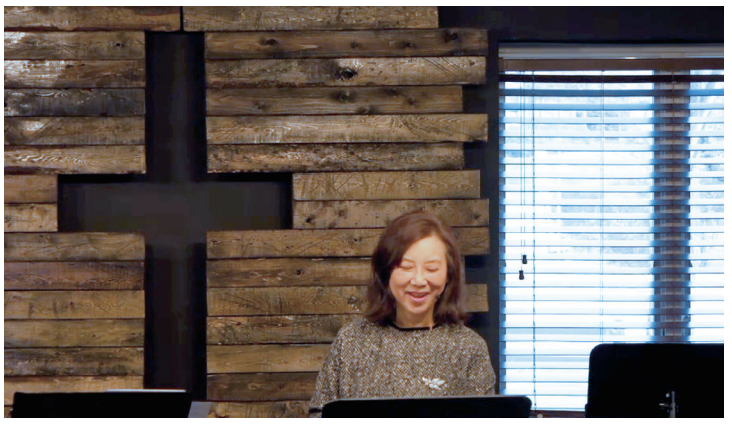
-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 이후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은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 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없지만, 당시는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진 근면성과 의지를 한 분이 높이 사셔서 스폰서가 되어주셔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옮기신 이후에 저희 일자리를 구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진 후유증으로 우리가 어려웠던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게 1994년도부터 시카고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2000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시밭 길이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민 1세대는 모두 겪는 이야기죠."

김 교수는 이민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녀는 대화 중 고국 땅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또 자연재해나 인종차별 등 고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갑자기 다른 주제이지만, 이민 1세대로는 영어가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건 모두 한국 사람들의 평가에요. 저는 미국 학교에서 원어민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주일은 빼 일주일 내내 원어민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 실력이 좋다고 느낄 기회가 없어요. 다만 도미 초기 간단한 인사만 간신히 하던 영어 실력이 지금은 전문적인 학문을 원어민과 논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건 느낍니다. 미국에 와서 10여년 까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잘 못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를 했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제가 1980년대에 유행했던 한국의 유명한 영어 회화 강사들의 테이프를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ESL 클래스를 개설하면서 영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물불 안가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구잡이로 했던 영어 공부를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게 된 것이죠."



▲ 교회에서 강의 중인 조앤 김 교수. 제공: 조앤 김

시행착오를 겪으며 효과적인 방법 터득해

-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신 거죠?

"저희를 도와주신 목사님이 미국 직장을 소개시켜줬어요. 경리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최종학력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월급은 얼마 이상은 안 올라갔어요. 제가 고졸이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여기서 얼마 안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는 한 벌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2등 시민으로 살 수 없다.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닌 직장이 주정부 대학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일리노이주립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안되는 영어로 고생하면서 눈물나게 공부한 것이죠."

- 공부는 어떠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제 적성이 문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발견을 못 했던 이과적인 적성을 미국 선생님들이 끌어내줬어요. 이런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더군요. 수업 시간에 바보 같은 말을 하거나 정답에 동떨어진 말을 해도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하는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나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다듬어주는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가서 40대 중반에 대학원을 다니고 나이 50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교육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지도교수님은 교육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교육은 사람을 공부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 강의실 풍경. 제공: 조앤 김

-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군요.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바닥을 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나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있었어요. 가방끈이 짧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전문직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고 좋은 혜택을 누리는 곳까지 올라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꿈을 쫓으며 살다보니 신앙은 갈수록 떨어졌어요. 아이들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교육하는 게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고 가르쳐요. 아이들이 반항하는 시기에 자기 논리를 펴면서 엄마는 틀리고 자기는 맞다고 이야기했죠.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그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복음학교라는 훈련을 알게 됐어요. 저는 당시에 저를 구원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상관 없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신학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커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모든 학사 일정을 다 취소하고 2016년에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복음 통해 인생문제의 정답 찾아

- 복음학교에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사탄에,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제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지는 시기였어요.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죄 곧 나, 나 곧 죄'라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한 주 동안 선포되는 말씀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될 만큼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일생일대의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의 자리에 저를 끼워주셨어요. 순회선교단 미주지부에서 2017년부터 다음세대 복음캠프(NGPC) 강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일 년에 두 번씩 가서 복음을 나눴는데, 그게 저를 복음 앞에 지속적으로 서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 아들도 NGPC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받았어요. 남편도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복음이 우리 집안을 건져주셨어요."

> "복음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달았어요"

-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대학교(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학부에서는 크리스천 미니스트리(Christian Ministry)와 졸업반을 대상으로 리서치 관련 수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에서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 사역이 주된 일이고, 그동안의 영어 공부 노하우를 살려서 미국에서 영어로 고생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현지 이민 교회에서는 영어예배(English Ministry)를 담당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G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마약 중독자였던 형제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K국 복음학교에 안텀(가명) 형제가 블라드(가명) 형제와 함께 멀고 먼 길을 달려 참여했습니다. K국으로 가는 길에 안텀 형제는 심장 통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온 복음학교에서 안텀 형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지만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던 형제에게 주님은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형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설 것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후 A지역을 여행하며 안텀 형제 가족과 만나 교제를 나눴습니다. 안텀 형제의 15살 된 딸 알리싸(가명)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교제하던 중에 알리싸 자매는 복음을 들으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에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싸 자매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믿음의 딸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K지역에 있을 때 블라드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은 정말 순하게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조각조각 각을 뜨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사실이 새삼 충격적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블라드 형제는 양을 잡을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은 다음 날 국이 되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존재가 교회인 저입니다.

복음을 만난 블라드 형제는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한 자신의 고향인 K지역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블라드 형제는 느리지만 자신이 헌신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블라드 형제와 그의 아내에게는 복음을 향한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감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 가르치려고 갔는데 그들의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살아있는 고백을 들으며 오히려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블라드 형제는 들과 산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방학이 되어 집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지 자신을 전도했던 블라드 형제를 꼭 닮은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밤에 모임에 가면서 그간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하여 행방이 묘연한 예고르(가명)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어둠 속에서 차를 세웠고 술 취한 예고르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르 형제는 예배에 와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쳤다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고르 형제가 블라드 형제처럼 복음을 만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블라드 형제도 전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출처: Unsplash의 Aleksandra Sapozhnikova

솜씨 좋은 목수인 블라드 형제는 현재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뼈대만 보이지만, 흡사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블라드 형제는 꿈을 꾸며 집을 짓습니다. 샤먼과 술과 마약으로 취한 마을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날을요. K지역의 작은 교회가 그 어둠의 땅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서 있어 구원의 통로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GPNEWS]

김요단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노숙자 인권 중시, 좀도둑 감싸는 인본주의… 미국 도시들을 황폐화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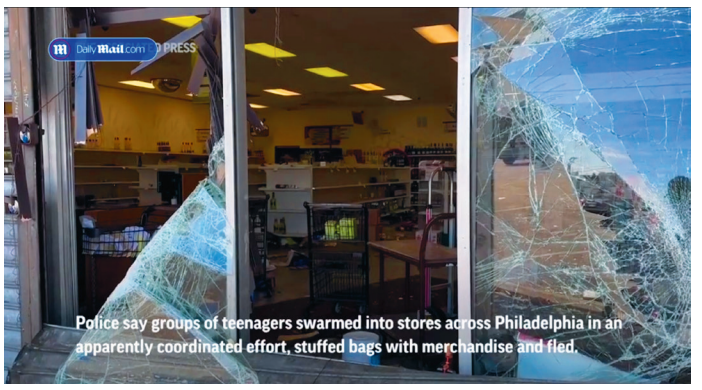
노숙자 퇴출을 반인권으로 여기고, 생계형 좀도둑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자는 인본주의 정책으로 미국 대도시가 범죄와 약탈, 마약 문제로 황폐화하고 있다.

최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숙자와 마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2020년 이후 40곳 이상의 매장이 시중심가에서 문을 닫았다. 미국 유명백화점 노드스트롬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노드스트롬 유니언스퀘어점을 35년만에 폐점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타겟이나 CVS 같은 대형 상점에는 자물쇠로 매장을 잠궈놓고 손님들이 요청하면 물건을 꺼내주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례행사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 센터에서 두 블럭 너머의 텐더로인에는 대낮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마약을 주사하거나 마약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나 약탈, 마약 중독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 하에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미국 연방법원이 2022년 12월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노숙자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노숙자 연합' 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4년 950달러 미만의 절도죄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발의안 47'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들이 상점의 물건을 훔쳐가는 범인을 적발해도 950달러 미만의 좀도둑에게는 벌금 고지서만 발부할 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나 필라델피아 등의 지역에서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대낮에 대형 매장에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물건을 가져가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직원이나 경찰은 이들을 바라볼 뿐,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한 애플스토어에서 복면을 쓴 약탈자들이 갑자기 우루루 매장으로 들어와 매장에 놓여 있는 아이폰을 들고 나가고 있는 영상을 소개했다. 또한 의류매장에서 도둑들이 한낮에 옷을 뭉치로 들고 나오고 있다. 샤넬 매장에서도 고급 샤넬 브랜드의 가방을 쓸어담아 가지고 나오는데도 직원들이 이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 10대들로부터 약탈당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매장. 출처: 데일리메일 영상 캡처

이에 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 대도시가 강도와 폭력, 마약으로 얼룩지면서 기업들의 이탈과 유통 매장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또 미국 부동산 회사 CBRE는 2023년 2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이 31.8%를 기록, 최고치라고 밝혔다. 2022년 4분기에는 27.6%였다.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47은 마약 문제도 심화시켰다. 이 발의안은 이미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시킨 조치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물 오남용에 빠진 이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상실, 마약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인권존중과 복지정책이 지나친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범죄를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비범죄화 정책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은 이처럼 인본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의 행정 책임자는 민주당 출신들이다. [GPNEWS]

〈C.K〉

복음의 능력

매일 기도하는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신학생들의 93%가 매일 정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설교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어떤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부도덕한 일은 없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영광의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설교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텔레비전으로 그들의 영적 비전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분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슬은 대낮에 내리지 않는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의 씨앗이다. [G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7)

병든 자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라 말할 수 없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인이 되었다. 죄인의 특징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인간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한다. 성경은 육적인 존재가 돼 버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골 3:5)고 말씀한다. 개선되거나 고쳐지거나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에너지가 오직 나에게로 향한다. 이러한 사람은 왜곡된 병든 자아의 욕구에 온통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성경은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다(골 3:5).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아 숭배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병든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사모함과 사랑의 에너지를 오직 나에게로 향하고, 이 병든 자아를 평생 나인 줄 알고 '나, 나, 나'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병든 자아 사랑은 우상 숭배하는 것

사울과 삼손과 가룟 유다는 오직,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향해야 할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향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보편적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가 갈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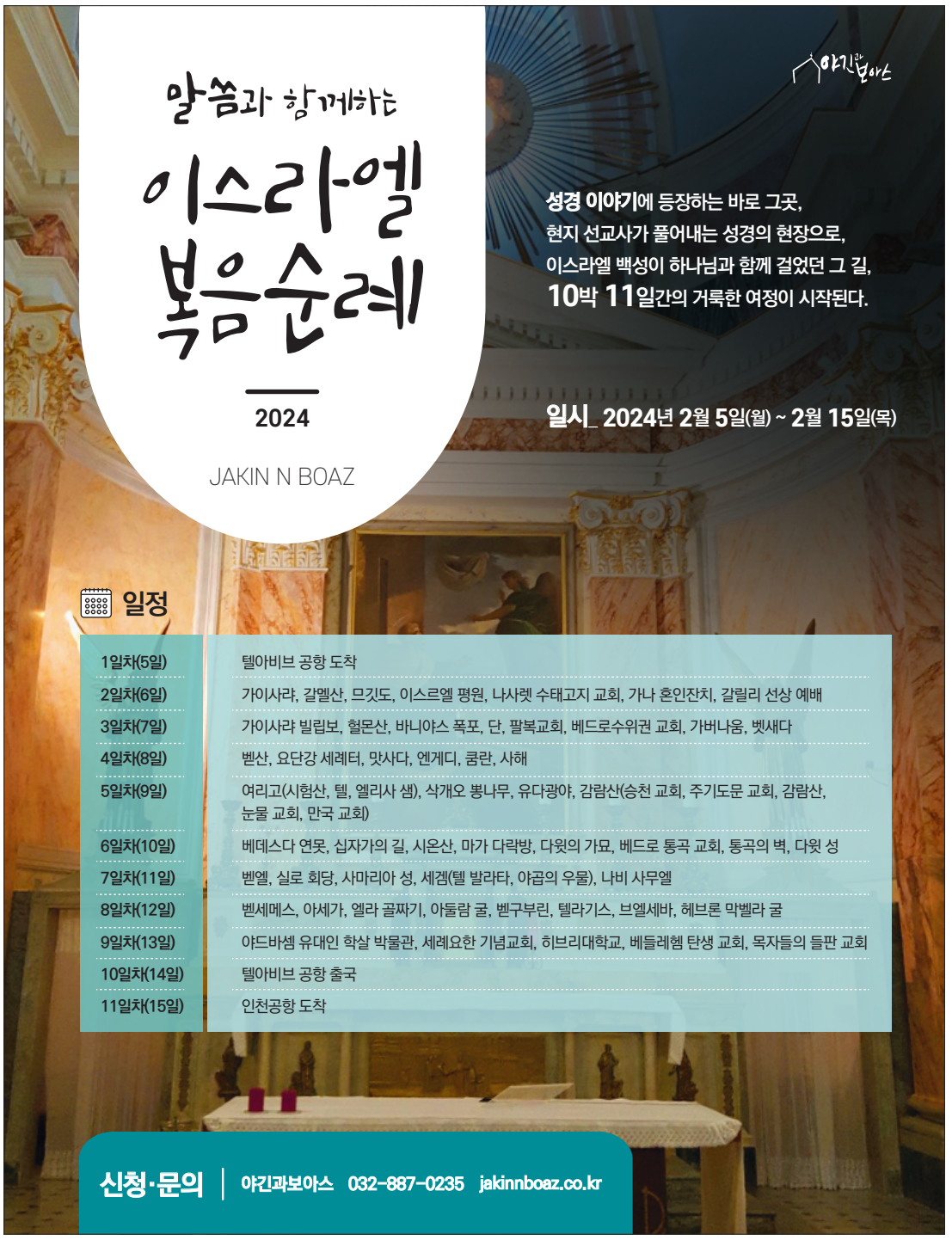
특별한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한 이들처럼 보편적 죄인들이 치르게 될 영적인 질병은 바로 병든 자아이다. 이렇게 병든 자아를 끌어안고 오직 나, 나, 나 하다가 죽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성경은 단호하게 진단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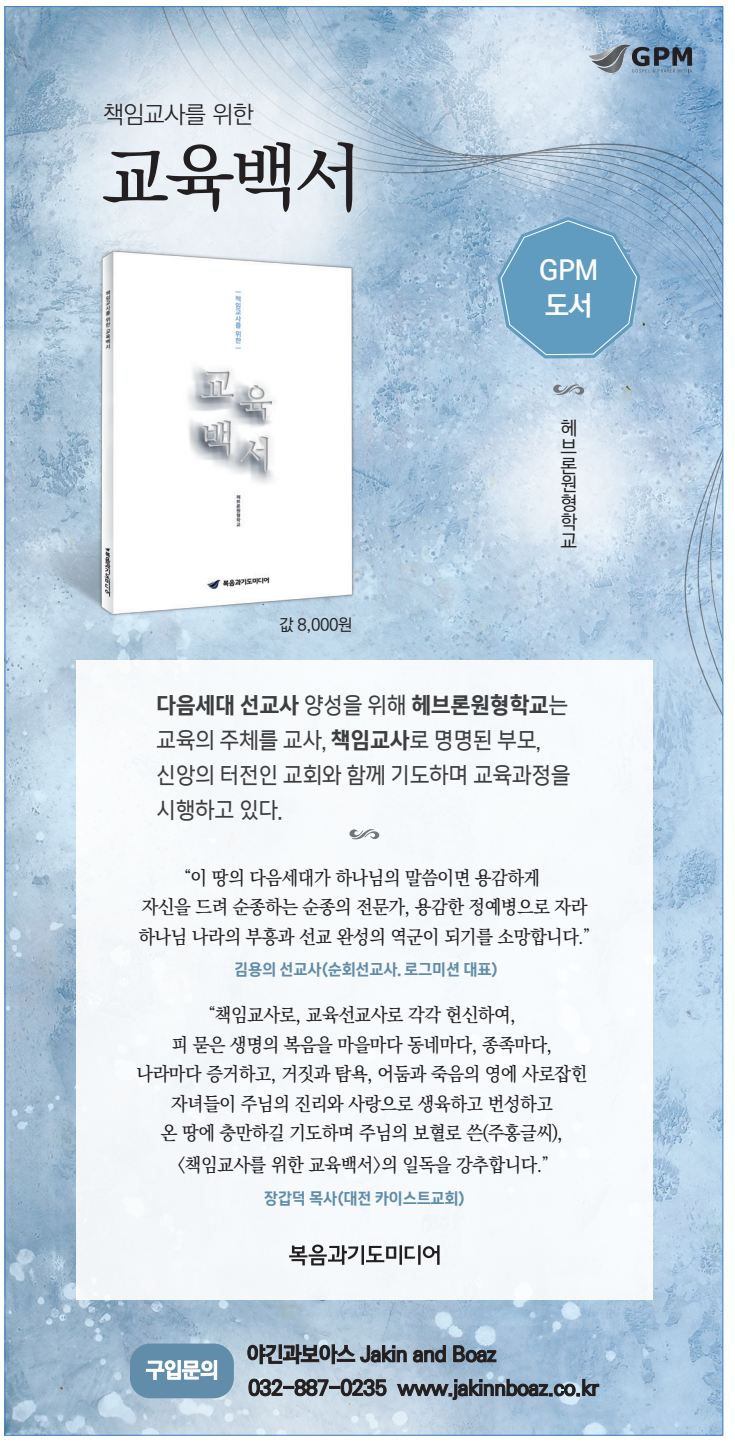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1~3)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죄로 죽었다. 그러나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원





믿음의 삶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33년 전 40대 자매들이 모이는 전도회에서, 나는 회장님 남동생의 권면으로 교정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판사였던 그는 죽음 앞에 선 사형수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는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불신자 사형수는 이를 갈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회에 교정사역을 참여해볼 것을 권했다. 처음엔 두렵고 무서웠다. 하지만 사역이 지속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무서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담장 안에 갇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30여 년을 사역했다.

매달마다 20~24명의 재소자와 교제했다. 두 사람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 간 다과를 함께 나누고 성경암송, 간증, 찬양으로 이어졌는데 매순간 피차 은혜를 받았다. 모임에 와서 안경구입이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

가장 감사한 일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불신자가 말씀을 접하면 신앙이 자라났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씀도 듣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음식이 나오면 맛이 없다며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한 재소자가 있었다. 그러던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멋진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정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다. 폭력으로 칼에 찔려 입원 중인 형제가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고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독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신학을 하라고 권면했는데 잘 순종하여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일러스트=고은선

현재 나는 14명의 재소자들을 돌보고 있다. 사형수 2명은 금년 3월부터 매달 자매 접견 예배를 함께 드린다. 다른 재소자들에게는 매달 영치금, 월간 새벽기도, 묵상 책, 복음기도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성경필사와 함께 매일 성경묵상을 1장씩 하도록 독려하며 분기별로 개인 접견으로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다.

2017년부터 교정사역팀장을 맡아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재소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가능했다. 나의 결심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순종의 자리에 설 것을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사역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간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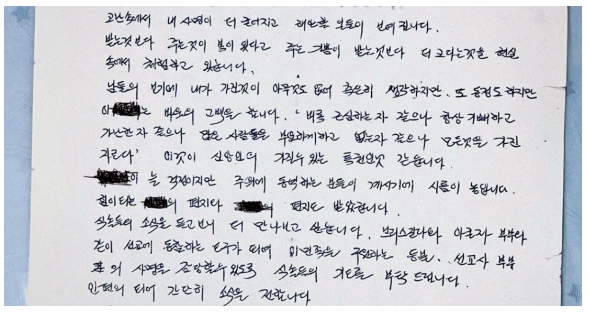
권정숙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성도, 핍박 중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환난 이겨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이다. 이들의 인권 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퉁이돌선교회의 9월 카타콤 특집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편지가 소개됐다.


▲ 북한 지하교회에서 보낸 편지.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캡처

탈북 후 복음을 위해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편지 작성자는 "동역자 한 분 없이 혼자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찬양도 못 불러 너무 숨막힌 날들이었다."며 "거기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 너무 절망이었다. 그 감옥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옥에서 혹독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매님을 보여주셨다."며 "나의 나약했던 신앙을 돌이켜 보게 되었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는 전혀 생소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성경책을 봤다는 죄로 온 한 여성은 하나님을 믿고 찾은 것이 죄가 되어 인간 세상에서도 지옥으로 불리는 그 속에 아직도 있다."면서 "3일이 멀다하게 죽어 나가는 시체들과 탈북자들의 생활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절반 죽어 나온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곳에서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다."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감사기도만 드릴 뿐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셨다. 이제는 내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뿐"이라고 고백했다.

모퉁이돌선교회에 따르면, 북한 지하교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해방 전부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공산화되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그루터기 교회 형태다. 또 다른 형태는 1990년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서,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대거 쏟아져 나왔다가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다. 모퉁이돌선교회는 "북한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 믿음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1만 5600명 이상이 순교의 피를 흘렸으며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GPNEWS]

美 북한인권위원회, "北 변화 주체는 北 주민"… 외부 정보 유입 필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북한 내 변화를 이끌 잠재적인 주체는 북한 주민"이라며 외부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북한인권 그리고 미래'라는 제하의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강력한 강압, 통제, 감시와 처벌 및 엄격한 정보 통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인권 이야기 ▲북한 지도부의 부패, 특히 김씨 정권 및 지휘 통제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외부세계, 특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GPNEWS]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ADHD, 약물 치료로 70~80% 효과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20·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신경 발달 질환이다. 사람은 태아 때부터 뇌 신경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뇌의 특정 부분에 결함이 생겨 이로 인해 도파민 회로의 기능 이상이 발생,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이러한 증상이 나온다.

ADHD로 진단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3가지 증상은 과잉행동과 충동성, 그리고 주의력결핍이다. 과잉행동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터가 달린 듯이 계속 움직이고 말이 많아서 옆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심지어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말을 많이 거는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 이런 과잉행동은 줄어든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충동성과 주의력결핍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지속된다. 충동성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을 하고 타인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순서, 줄을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통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울고 떼를 쓰지만 어느 정도 크면 참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DHD 아이들은 충동성 때문에 뭐가 하고 싶을 때, 당장 안 하면 견디지 못한다. 이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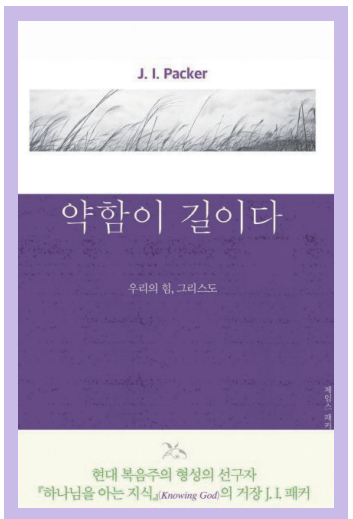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의력결핍, 부주의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다. 집중력이 필요한 일 특히 학습 중에서도 수학과 같이 정신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긴 대화나 독서, 회의, 수업 중에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시간관리를 잘 하지 못하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있다.

ADHD의 약물치료의 효과는 70~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의 핵심이며, 이로 인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법,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하여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부모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등이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G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제임스 패커 〈약함이 길이다〉

세상 논리와 정반대로 연약함을 자랑하는 복음의 길



제임스 패커 지음 | 윤종석 옮김 | 디모데 | 144p | 2014

구약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연약함'을 주제로 제임스 I. 패커가 펴낸 책 표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약함이 길이다', '우리의 힘, 그리스도'. 그가 이 책에 담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다. 그는 연약함의 길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따라가라는 복음으로 초대했다. 내 마음에 던져진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강해져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단어가 참 경이롭다.

연약함이란 철저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개념이다. 연약함은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있다. 몸이 약하면 운동을 잘하기 어렵다. 체력이 약하면 온갖 병에 걸리기 쉽다. 성품이 약하면 지도자나 부모, 팀장은 물론 어쩌면 팀원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다른 부분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다. 연약함은 사람의 실존 자체에 먹구름을 가져온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모든 인간은 원죄에 물들어 있다. 원죄는 자만심, 독립심, 뿌리 깊은 이기심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바로 그 연약함이 또한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신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면 절박함을 얻게 되고, 그 절박한 마음은 주님을 찾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느낌은 흔히 패배감과 연결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죄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무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겸손한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매순간 우리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의존할 수 있고, 주님께 의존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은 바울에게 장애에 준하는 심한 고통을 품고 살게 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죽는 날까지 지속될 연약함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도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라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점점 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통을 인식하게 하신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작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내 안의 연약함들을 본다. 육체의 연약함, 성품의 연약함, 실력의 연약함, 지적인 연약함. 지금도 내 삶에 수많은 연약함들을 일구어가시며, 주님으로만 결론 내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사랑한다. 크고 작은 성공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들까지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일하셔서 가능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실패가 없으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 찬양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소망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GPNEWS]

양동원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하멜과 박연

▲ 당시 조선의 국왕인 효종과 하멜 일행들을 묘사한 삽화. 출처: contents.history.go.kr 캡처

〈하멜 표류기〉는 조선이란 나라의 사회상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책이었다. 헨드릭 하멜의 표류기는 1668년에 화란어로 출판된 후 불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었으니, 당시 조선의 민낯을 세계에 알리는 최초의 책이 되었다. 하멜 표류기 내용에는 1653년 1월에 하멜 일행이 화란을 출발해서 6월 1일 바따비아(Batavia)에 이르러 수일 머문 후 14일에 스펠월(Sperwer)이란 배를 타고 대만에 잠시 들려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제주도 서귀포 부근에 파선했었다. 선원 64명 중 28명은 익사하고 배의 서기인 하멜을 비롯한 36인이 제주도에 표류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 관원에게 잡혀 왔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양에 있는 외국인 관헌인 한 분을 데려왔다. 그가 바로 이미 십수 년 전에 풍랑으로 조선에 정착한 박연(朴延, Jan Janse Weltevree)이었다. 하멜 일행은 고향 사람을 만났고 네덜란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다. 하지만 박연은 하멜 일행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 하멜 일행은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전라남도 강진의 병영에 유배되었다가 14년 만에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고국으로 돌아가 이 표류기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멜은 조선의 지리, 풍토, 산물, 정치, 군사, 법속, 종교, 교육, 교역에 대해서 하멜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집필했다.

필자는 금번 여름에 벼르고 별러서 강진으로 가서 병영 앞에 전시된 하멜의 행적을 살폈다. 내가 하멜의 표류기를 관심 있게 본 것은 헨드릭 하멜과 선원들 대부분이 화란 개혁교회(Gereformeerd Kerk)의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스위스의 요한 칼빈(John Calvin)의 종교개혁 이후, 17세기에 가장 개혁교회의 사상체계를 널리 확산시킨 곳은 사실 화란이었다. 그 이유는 화란 왕국을 건국한 윌리암 오렌지(William Orange) 공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오렌지 장군을 국왕으로 추대했고 오렌지 국왕은 스페인의 가톨릭의 신앙을 포기하고 칼빈주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화란은 종교개혁 이후 가장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사상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국제종교회의로서 돌트 총회(Dort Synod, 1618~1619)를 열고, 6개월 동안 154회의 회의를 거쳐 〈칼빈주의 5대 교리(Five Points)〉를 만들었다. 때문에 그 시기의 화란 사회의 분위기는 대다수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질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즈음에 조선에 〈박연〉도 오고, 한참 후에 〈하멜〉 일행이 풍랑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세계와 담을 쌓고, 외부와의 정보나 교류가 전혀 없던 시기였고, 오직 양반계급의 유교적 세계관에 갇혀 있을 때였다. 박연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으나 당시로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Reformed Faith)을 가졌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종교 활동을 한 일도 없으나, 〈효종실록〉에는 박연을 가르쳐서 늘 진리를 말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즉 〈有類道者談(유유도자담)〉이라고 말끝마다 도를 닦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그리고 박연은 자주 〈順天者興, 逆天者亡(순천자흥 역천자망)-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아무래도 기독교의 복음을 유교식으로, 또는 맹자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본 기록을 보면 후일 하멜 일행이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경찰에게 심문을 받을 때, 일본 경찰이 질문하기를 "너희들은 너희 나라 종교인 크리스천이냐(吉利示団, Kirishitan)"라고 물었을 때, 하멜 일행은 다같이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교수인 게리 레드야드(Gary Ledyard)의 교수의 책 〈화란 사람, 한국에 오다. The Dutch Come to Korea〉에 보면 항해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몇 번 있다.

17세기 화란 개혁교회 성도였던 하멜 일행과 한국에 귀화해서 화포 만드는 일에 공헌한 박연이 나름대로 〈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맹자 식의 말은, 이 나라에 최초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 아닐는지? [GPNEWS]

정성구 박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9. 7 ~ 10. 2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정숙 권혜령 김광희 김득기 김명순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원숙 김혜신 박성규 신혜경 이보희 이상현 이영선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국철 조국헌 조명숙 조복형 조은숙 조은자 조은주 조형광 존/정희 진미자 최근희 홍고집 홍찬일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그교회 주나임교회 주소망교회 참좋았더라교회 옥토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